

문서번호	기획담당관-996
결재일자	2013. 1. 25.
공개여부	비공개 (5)
방침번호	

시 민

주무관	기획행정팀장	기획담당관
서정욱	송인상	01/25 주용태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「시정고문단」 정기회의 개최 결과

2013. 1.

서울특별시
(기 획 담 당 관)

「시정고문단」 정기회의 개최결과

2013년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등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시정고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□ 개 요

- 일 시 : '13. 1.17(목), 19:00 ~ 21:30
- 장 소 : 은덕문화원(종로구 원서동 129, 창덕궁 옆)
- 참 석 : 16명
 - 시정고문단(10) : 한승헌 대표 등 10명 (* 15명 중 5명 불참)
 - 시(6) : 시장, 고용노동정책관, 정책기획관, 정책특보, 기획담당관, 일자리정책과장
- 주요내용 : 주요 현안사항 보고, 만찬을 겸한 회의
 - 발제1 :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(고용노동정책관)
 - 발제2 : 2013년 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방향 (고용노동정책관)

[회의결과 조치계획]

- ▷ 자문내용 관련 부서 통보(3건) 및 사후관리
 - 경평축구 추진(한완상), 지식서비스산업·BT부문 활성화(김영호)
 -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모색(신필균)
- ▷ 고문단 「시정참여 활성화」 를 위해 관련부서 협조 조치(프로필 등 제공)
 - 시정 주요 분야에 강사로 초청, 특강 개최 : 인력개발과 등
 - 시정간행물 및 언론 칼럼 기고 등 지원 : 시민소통기획관 등
- ▷ 고문단 신청사 투어 및 오찬(회의) 추진 : 3월중

※ 행정사항 : 외부참석자(고문 10명)에 대해 참석수당 및 사전검토 수당 지급

회의개최 사진



※ 참석(10명) : 한승헌, 김영호, 김영희, 남재희, 송보경, 신인령, 신필균, 이선종, 이현숙, 한완상 (박영숙, 신경림, 장대환, 조한혜정, 최상용 불참)

회의내용 요약

○ 시장

-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,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지난해 여름에 공관에서 뵙고, 사실 모임을 못 가졌는데 죄송함. 그간 시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의견 저도 받아 봤으며, 그 중에 17건은 반영해서 여러 가지 참고가 많이 되었음. 평소에도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겠음.

○ 한승헌 대표

- 지난 한 해 박원순 시장의 혁신적인 시정이 본격화되었음.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는 서울시가 일자리 등 민생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, 어려운 민생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람.
- 어떻게 하면 시정고문단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서울시 간부와 협의를 하였음. 서울시 특강초청 강연, 시정간행물 칼럼 기고, 정례간부회의 참석 정책자문, 이렇게 크게 3가지이며, 앞으로 회의를 통한 자문도 하고, 보내 주신 시정자료에 대한 개별적 자문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람.

○ 신필균 고문

- 산하기관(자회사)을 만들어서 인력을 고용하는 이유가 퇴직이후에도 지급 되어야 할 후생비용에 대한 부담, 예산상의 이유도 있을 것임. 따라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음.

○ 한완상 고문

- 그런데 '직접고용'과 같은 정책방향은 앞으로 민영화, 아웃소싱을 통한 민간 부문을 활성화라는 새 정부의 철학과는 다소 부딪히는 면이 있음. 신념을 가지고 하셔야 할 것임.

○ 남재희 고문

- 교보빌딩 앞 지하철 통로에 보면, 8년째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 통로의 반을 점유하고 있으며, 거기뿐만 아니라, 덕수궁 옆 쌍용자동차 천막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데, 한마디로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적정선 차원의 문제임. 시장님께서 직접 가 보셔서 판단해 보시길 바람.

○ 시 장

-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국적인 해결책이며, 그렇게 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갈등을 해결할 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함

○ 한완상 고문

- 작년 처음 고문단 회의에서 서울시는 다른 지방도시와 다르게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이며. 그래서 경평축구 문제를 언급했었음. 2002년 5월, 당시 박근혜 의원과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과 평양 간 축구시합 개최를 합의했었는데 이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면 좋겠음.

○ 시 장

- 서울시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고 지자체장은 대통령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, 뭐든지 협력하고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음

○ 신필균 고문

- 너무나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셔서 잘 추진하셨음. 독일에서는 사회적 기업 개념을 사회문제를 기업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는데, 서울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함.

○ 시 장

- 우리도 영국에서 시작된 'Social impact bond'처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음.

○ 신필균 고문

- 사회적 기업이 지속할 수 있으려면, 그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, 그렇지 못해서 제품의 질이 좋지 못함

○ 시 장

- 그래서 SBA(서울통상진흥원)에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으며, 사회적 기업들이 철두철미하게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용자까지 해주려고 사회투자기금을 마련하고 있음.

○ 김영호 고문

- 서울시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고용률이 높고, 서울에서 가장 부족한 부문이고, 가장 성장률이 높은 부문인 '지식서비스 산업'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.
- 그리고 생물다양성 시장이 기후변화 시장보다 8배 정도 큰데, 서울시는 기후변화 쪽만 생각하고, 생물다양성 쪽을 생각하지 않음.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음

○ 시 장

- 1970년대 과학기술의 요람이었던 홍릉일대를 개발하는 문제에 홍릉포럼과 함께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음. R&D, 융복합 산업, IT와 BT 부문은 마곡 지구 쪽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내려고 생각중임.

○ 남재희 고문

- 프랑스에서는 교사를 대폭 늘려 고용을 늘리겠다고 하는데, 그런 걸 한국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가령 우리사회에 복지사 수가 적는데,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면 복지사를 대폭 늘리고, 학교 교사를 대폭 늘려서 취약 아동 대비 교사비율을 늘린다면 어떨까요.

○ 시 장

- 복지 업무는 엄청 늘어나고 있으므로 복지사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. 그런데 20조 부채가 있어서 긴축재정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함. 긴축하면서도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하겠음.

○ 시 장(마무리 말씀)

- 그리고 다음에는 신청사 투어를 한번 하시고,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모임을 마련토록 하겠음.